

지하공간은 문명의 역사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오랜 옛날 인간은 맹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고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자연 동굴이나 직접 손으로 땅을 파고 지하에서 살았다. 이제 더 이상 지하 동굴에서 살지 않지만 굴착 기술이 고도로 발전하고 정교해지면서 지하공간은 현대 도시인들의 일상 생활에서 중요한 공간이 되고 있다.

인류 문명에서 뿐만 아니라 지하 세계는 고대 신화에서 상징적인 의미로 그려져 왔다. 그리스 신화 중에 페르세포네(Persephone) 신화는 계절의 순환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데 지하 세계는 곧 겨울을 상징한다. 페르세포네는 한 송이의 수선화를 꺾은 대가로 저승의 지배자이자 죽은 자들의 신인 하데스(Hades;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또는 '땅속에 있는 것'을 통칭한다)에 의해 지하 세계로 납치된다. 딸을 잃은 데메테르(Demeter; 곡물과 번식의 여신)가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되자 꽃과 풀이 시들고 과일도 열리지 않았다. 신들이 굶어 죽어가는 인간들을 불쌍하게 여기자 제우스가 페르세포네를 1년 중 1/3은 지하세계에서 살게 하고 2/3는 지상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도록 중재한다. 페르세포네가 지상에서 지낼 때는 곡식이 자라고 과일이 열리지만 다시 지하 세계로 돌아가면 땅은 얼어붙는 겨울이 된다.

이처럼 고대 신화에는 계절이 순환하듯이 인간의 삶도 지상과 지하를 순환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었다. 고대인에게 지하세계는 죽음을 의미했으나 그들은 지상에서의 삶이 끝나면 그 다음 지하에서의 삶이 이어진다고 믿었다. 이 두 세계를 연결하는 '문'이 바로 동굴이었다. 무기를 연마하여 맹수와 대적할 수 있게 된 인간들이 동굴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동굴은 더 이상 삶의 공간이 아니라 죽음과 부패의 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또한 도시 문명이 형성되면서 동굴은 삶의 이면으로 밀려나게 되었고 또 다른 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지하 공간들이 탄생하게 되었다. 지하와 지상을 연결하는 문이었던 동굴은 오늘날의 터널에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문명의 이기는 도시로 몰려드는 인구로 복잡해지고 정체되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 터널로 다니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개발하기에 이른다.

손은영은 지난 1여 년 동안 서울의 지하철을 찍어왔다. 그녀는 9개의 지하철 노선 중에서 서울의 중심부를 타원형을 그리며 운행하는 2호선을 선택하였다. 2호선은 전체 50개의 역 구간을 지하와 지상을 교차하면서 유일하게 순환하는 특별한 노선을 가지고 있다. 지하철을 찍었던 작업 중에는 대표적으로 브루스 데이비슨(Bruce Davidson)이 1980-81년까지 뉴욕의 지하철을 촬영한 「Subway」가 있다. 그는 지하철 안 밖에서 만난 뉴욕의 다양한 사람들의 초상을 리얼하게 포착하였다. 독일 사진가 미하엘 볼프(Michael Wolf)는 연간 30억 명이 이용하면서 지옥철이라 불리는 출·퇴근 시간대의 도쿄 지하철에 시달리는 시민들의 고단한 모습을 「도쿄의 압축 Tokyo Compression」연작에 담았다.

손은영은 이들과 달리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았던 지하의 풍경을 보여준다. 누군가 "지하철은 도시의 몸에 흐르는 핏줄 같다"고 표현한 바와 같이 지하철의 맨 앞에서 바라본 전경을 보여주는 사진들은 마치 '차가운 콘크리트 핏줄' 속을 탐험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녀는 이번 전시를 통해 저 멀리서 지속적으로 다시 설정되면서, 결코 다다를 수 없도록 끊임없이 달아나버리는 소실점을 향해 달려가는 영상 작업 < ?제목? >도 함께 선보인다. 달리고 있는 철도의 속도로 인하여 변화되는 공간적인 관계들은 앞선 공간의 소멸과 이후 공간에 대한 기대라는 이중의 과정을 통해 경험된다. 이 작업은 스틸사진과는 또 다르게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적 경험과 공간에 대한 감각을 제공한다.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지하철을 타고 다녔지만 한 번도 체험할 수 없었던 것으로 '기관사의 옆자리'에 앉을 수 있는 특권

을 가질 때만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지하에서 지상으로, 또는 지상에서 지하로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다른 세계로 빨리 들어가는 듯한 느낌은 마치 페르세포네가 두 세계를 오갈 수 있었던 관문인 동굴(오늘날의 터널)을 통과할 때의 감각에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지하철(Subway)은 가장 먼저 산업 혁명의 메카인 런던에서 1863년 1월에 만들어졌는데, 당시 메트로 Metro(당시 도시철도망을 구상한 Metropolitan회사의 이름을 따서 지하철을 메트로라 부르게 됨)는 근대적 삶의 형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공장의 노동자들을 집에서 멀리 떨어진 일터로 짧은 시간 안에 대량 수송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통수단이었기 때문이다. 현대적인 운율과 시각적인 이미지를 노래했던 미국의 시인 에스라 파운드(Ezra Pound)는 1908년부터 1920년까지 런던에 거주하는 동안 지하철에서 받은 인상을 '지하철 정거장에서'(1916년)이라는 시를 통하여 쓴 바 있다. 이 시는 "군중 속에서 유령처럼 나타나는 이 얼굴들 / 까맣게 젖은 나뭇가지 위의 꽃잎들." 로 짧고 경쾌한 리듬을 가진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었다. 당시 증기 기관차로 운행되면서 석탄 매연을 까맣게 뒤집어쓴 채 한 무리 유령처럼 내리는 군중들의 열악한 삶의 환경을 시인은 그렇게 묘사했으리라.

1900년 파리의 지하에 도시철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독일의 철학자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은 철도가 반감지 않았던지 「아케이드 프로젝트」를 통해 아침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을 집어삼키는 미노타우로스 신화 속의 광폭한 황소로 묘사한 바 있다. 그에게도 지하철은 "창백한 안색으로 바느질하던 소녀나 잠이 덜 깬 점원들"이 타는 소시민들의 교통수단이었고 파리의 지하는 밤이면 불빛이 환하게 쬐이는 황천길로 비유되었다.

손은영 역시 이번 <The Underground>연작을 통해 삶의 속도에 지친 현대인들의 소외와 고독을 드러내는 인물들을 주목하였다. 그 사진들 앞에서 우리는 기차 안, 호텔, 영화관 등의 공공장소에서의 도시인의 고독을 그렸던 에드워드 호퍼(Edward Hopper)의 그림을, 데이비드 리스먼(David Riesman)의 '고독한 군중(The Lonely Crowd)'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손은영의 이번 연작은 이제 현대인들의 일상을 상징하는 공간이 된 지하철에서 그 동안 볼 수 없었던 또는 보이지 않았던 심리적 공간, 즉 도시의 가시성과 비가시성을 사진적 시각으로 드러내려는 시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